

2019 수능대비

기출을

A

가르칩니다

심찬우 지음 / 공감연구소

#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이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잊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심한 열병을 앓았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좌절감과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굴복하려드는 스스로에게 매우 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까지 했다. 수능이라는 것이, 입시라는 것이,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특별함을, 나만의 존재 가치를 넘어설 만큼 그리도 대단한 것이었을까.

수능이라는 시험은 정형화된 패턴이 있고 반복 숙달을 통해 사고력만 훈련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음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내가 가진 특별함을 잇는다면 고득점 따위는 쉽게 가능한 일일 터.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다.** 입시가 만들어내는 1년의 고행길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과연 특별한 존재였음을 기억할 수 있는냐는 것. 나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끝없는 회의(懷疑) 속에서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진 ‘**특별함**’은 무엇인지를 찾는, 말 그대로 ‘나를 여행해왔던’ 시간들이었다. 그러기에 ‘잊혀짐’과의 투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술한 젊음의 시절들 앞에 저 한 마디는 너무나 잔인하고 또 무참했다.

중력보다 더 큰 힘으로 나의 자존감을 끌어내리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계로 편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외쳐온 젊음이었을까.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나를 키운 8할은, 내가 가진 ‘**특별함**’이었음을 누가 부정하려드는가. 나는 남들보다 무엇을 잘한다가 아닌, 나는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실하진 않지만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

나는 나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에 입시의 끝없는 추격에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바로 그 ‘**특별함**’이다. 우리는 기존에 존재하는 별이 아닌, 우리가 새로이 만든 별을 지향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피 속에서 젊음을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상념의 벤치’라 불리는 공간이 있었다. 수험생 시절, 깊어져 가는 밤과 함께 내가 가진 특별함과 존재의 의미를 되물었던 공간이다. 차가운 겨울 그가 나를 찾아와주었고, 차가운 겨울이 끝나갈 무렵 그는 잊지 않고 다시 나를 찾아와 주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나를 외면하고, 외로움에 지쳐갈 때마다 밤하늘과 별은 여전히 그 자리의 나를 비춰주었다. 실패한 사람, 낙오자라는 패배감에 물들어갈 때도 그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

‘교육’이라는 큰 산 앞에 장엄한 모습으로 선 그날부터 나는 그대들에게 절대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대에게 **그대만의** 별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고, 그대가 이 세상에 올 때 분명 그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존재함을 말해주겠다고 결심했다. 10년 전 그대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사람은 홀로 그 시간을 정말 외롭게 견뎌냈기에 그대만큼은 그 외로움에 혼자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기에 더욱 용기 내어 말하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대가 가진 ‘**특별함**’만 있다면 그 어떠한 일도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고, 그대가 가진 고유의 색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운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전에 출발한 빛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박노해, 「별은 너에게로」

늘 말하듯, 하루가 끝나갈 때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으면 한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그 속에 빛나는 별을 볼 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품을 세상은 끝없이 펼쳐진 우주보다도 넓은 것이고, 내가 가진 '특별함'은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보다 밝다는 사실을.

2018년 2월의 거울을 떠나보내며

심 찬 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열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짝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우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 북도로 나선다. 북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 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흥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밟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별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돌이 함께 있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서 있다. 앞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 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잇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별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별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 최인훈, 「광장」 -

\* 콜호스: 구소련의 집단 농장.  
\* 사복: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돌려꾸러처럼 쓰이는 물건.  
\* 마스트: 돛대.

0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풍자적 어조를 통해 이야기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ㄴ.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ㄷ.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ㄹ.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위 글의 '사복 자리', '삶의 광장', '푸른 광장'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펼쳐진 부채에 비유된 '삶의 광장'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군.
- ② '사복 자리'는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로 표현될 만큼 삶의 위기감이 고조된 공간이군.
- ③ '사복 자리'에서, 주인공은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 ④ '사복 자리'에서, 주인공은 '삶의 광장'에서 '푸른 광장'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군.
- ⑤ 주인공은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와 '딸'을 '푸른 광장'에 연결 짓고 있군.

0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나는 의미를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 한다. 이것은 그 작품을 낳게 한 계기이기도 하며, 또 그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핵심적인 고민과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구체적 상황의 의미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보편적 의미라 한다. 몇백 년 전의 작품의 가치를 오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의미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 ① 이명준이 활동한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을 실제로 답사하여 현장 체험을 한다.
- ② 이명준이 은혜와 함께 있던 동굴이 우리 신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 ③ 이명준의 삶과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 ④ 이명준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종합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이명준의 일대기를 작성해 본다.
- ⑤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지녔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이어질 내용에서 그림의 소재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을 미리 알려 준다.
- ③ ㉢ : 상념에서 현실 세계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드러난다.
- ⑤ ㉣ : 경쾌하게 날고 있는 새의 모습에 주인공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다.

05. ㉤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유사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불-타다 1. 불이 붙어서 타다. ㉤화재로 집이 불타다.
- 2. (비유적으로) 매우 붉은빛으로 빛나다. ㉤불타는 노을.

- ① 오늘 한창 물오른 싱싱한 생선이 나왔다.
- ② 어린 동생은 자기의 나이를 손꼽아 세었다.
- ③ 분홍색 메꽃이 군데군데 두렁을 수놓고 있다.
- ④ 바람 소리도 잠들고 짐승들 울음소리마저 사라졌다.
- ⑤ 오월의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가 부슬거리고 있었다.